

“12기 첫 승전보, 자랑스럽다” 위원장,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만나 ... “7년 투쟁 초심으로 민주노조 확대하자”

“2022년 금속노조 12기 첫 승전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장 정문에 걸린 ‘2022년 교섭은 금속노조가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을 만난 첫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1월 19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 방문해 지회 확대간부 교육에 앞서 조합원들을 만나 인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말 자랑스럽다. 2014년 이후 7년 넘게 소수노조로서 자본과 어용노조의 탄압을 견디고,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긴 투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다수노조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라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한국타이어지회 투쟁의 의미를 짚으며 “금속노조에 120개 넘



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다. 이 동지들이 한국타이어지회의 영웅적인 투쟁을 보며 희망을 갖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들불처럼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자본은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집단이다. 다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것

이다” 라면서, “7년 투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노동자 관점으로 투쟁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민주노조와 함께 더 좋은 한국타이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2022년 금속노조의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최초로 지역지부 출신으로서 위원장에 당선됐다. 지부 동지들의 목소리를 노조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노동중심 산업전환, 재벌의 다단계 하청 착취 구조 타파, 복수노조 강제 창구단일화 폐지 등 주요 요구를 쟁취하

기 위해 하반기 20만 총파업을 결심하고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인사를 마치며 “19만 단결해 민주노조 사수하고, 금속노조가 승리하는 길 최선두에 서서 나아가겠다. 동지들 정말 고생했다” 라고 결의와 동지애를 전했다.

“복직 때보다 설레 밤을 꼬박 새웠다”

쌍용자동차지부 사무실 개소식 열어 ... 금속노조 지부, 12년 만에 공장 근거리 구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2년 만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돌아왔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월 19일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지부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부는 평택 시내, 평택공장 앞 카페 ‘차차’, 심리치유센터 ‘와락’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개소식을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출한 규모로 진행했다. 지부는 “수많은 분이 지부를 도와 주셨으나, 코로나 19로 모두 초대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말을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개소식에서 “오늘 회사 식당 네 곳에서 3,000여 명이 넘는 동료들을 일일이 만나 개소식 기념 떡을 나눴다”라며 “어젯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복직할 때보다 설레는 마음에 꼬박 새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 12년은 절박함 속에서 버틴 시간이었다. 힘들 때마다 많은 분이 힘을 보태주셨다”라면서 “연대 단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무엇보다 공장 안 동료들이 우리가 버틸 수 있던 힘이였다. 그 힘으로 복직까지 이뤄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작지만, 12년 동안 연대한 역량을 올해 상반기 모을 것이다.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평택공장에 오는 길에 연대투쟁 했던 뜨거운 여름을 생각했다”라며 “오늘 개소식은 산화하신 쌍용차 열사들과 가족, 연대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다. 탄압으로 얼룩진 현장을 정의로운 현장으로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금속노조 방문

금속노조·진보정당 정례협의회 추진 ... 위원장, “20만 총파업 전 사회 투쟁으로 만들겠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1월 18일 오후 금속노조에 방문했다. 김재연 대표는 진보당 대통령 후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김재연 대표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20만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가 중심에 서서 전 사회 투쟁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찾아가 투쟁 계획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은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과제를 찾을 것이다”라며 “노동자의 한 표가 한국 사회를 바꾸는 위력의 표가 되도록 함께 계획을 세

워보자”라고 답했다. 김재연 대선 후보는 “진보 대단결을 만드는 계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진보당은 꼭 진보 대단결을 이루겠다”라면서, “금속노조와 함께 길을 찾겠다. 진보당은 노동 중심성을 더욱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노동 중심 정치를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답했다.

“LG하이엠솔루텍은 민주노조 파괴 중단하라”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 ... LG, 어용노조 끼고 노사협의회 열어 멋대로 합의

금속노조가 LG하이엠솔루텍의 노사협의회 악용과 민주노조 무력화 등 악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1월 18일 오후 노동부 서울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 을 열었다.

LG하이엠솔루텍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과 ‘노사협의회’ 를 악용해 어용노조에 힘을 실으며 민주노조를 와해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어용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회사 입맛에 맞는 합의를 하는 식이다.

근참법은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동자가 노동자 대표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LG하이엠솔루텍에 전체 노동자 과반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서울 2021교섭92)에 따르면 LG하이엠솔루텍 전체 노동자는 1,350여 명이다. 과반 기준은 655명이다. 이 중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은 466명, 금속노조 조합원은 160명이다.

LG하이엠솔루텍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전체 노동자 과반을 조직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이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

다. 금속노조는 불법 노사협의회 운영 중단과 한국노총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근거를 밝히라고 사측에 계속 요구했다. 사측은 아무런 해명 없이 노사협의회를 강행해 임금과 단체협약, 노동조건을 일방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 설정석 LG전자지회장과 고광희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LG전자의 민주노조 탄압 피해 당사자로 함께 했다.

근참법, 민주노조 탄압도구 전략

설정석 지회장은 “사측이 강제로 조직한 어용노조를 활용해 30년 무분규 노사교섭을 하고 있다”라며 “LG전자는 탄력근로제 밀실 합의, 부당징계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멈추라” 라고 경고했다.

고광희 지회장은 “오늘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정말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가 맞는지, 노동자 대표 자격이 있는지 노동부는 제대로 확인하라” 라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현장에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이었으면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근참법과 노사협의회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였다. 근참법은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사용자의 도구다” 라고 규정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근참법에 강제조항이 없다. 근참법을 근거로 수많은 회사가 노동조합 탄생을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제멋대로 제한해왔던 게 지난 수십 년 역사다” 라고 꼬집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노동자를 옥죄는 근참법을 한 번 더 비틀고, 악용해 노동자 통제 전략으로 활용한 자본이 LG다” 라며 “법은 과반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라고 명시한다. LG는 민주노조를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라 우기고 노사협의회를 멋대로 구성하더니, 결국 자본 입맛에 맞는 합의를 했다” 라고 분노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라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인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서울 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참법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만든 노동악법인 ‘노사협의회법’ 을 계승한 법이다.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분배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인력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 의 일반원칙 등 14개 항목을 사측과 노동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